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02

FEBRUARY 2016  
vol.14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다솜'

'다솜'은 '사랑'이라는 순 우리말이다.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 바로 사랑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에 시선을 돌려보자. 그리고 가슴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그곳에 우리가 찾던 행복이 있다.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 〈타자〉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보이기  
길이

김규동님의  
'가는 데까지' 중에서  
새터 이상현

# 당신만의 힐링 아포리즘은 무엇입니까?



## What is your Healing Aphorism?



복잡함이  
주는 불안,  
단순함이  
주는 평안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시대, 사색이 사치가 되는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이다. 생각의 여백 갖기를 능동적으로 포기한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남과 동시에 각종 정보로 넘쳐나는 스마트폰에 영혼을 빼앗기고, 미디어 채널에 눈길을 떼지 못한다. 눈을 감고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깜빡 졸기 일쑤고, 수많은 글들을 접하지만 정작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다. 글의 홍수, 정보의 홍수,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꼴이다. 불안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다.

복잡함이 주는 불안이 단순함이 주는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치유라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삶이 흔들릴 때 '어쩌다 마주친' 단순한 글귀 하나가 흔들리는 마음을 '일시정지'시키기도 한다. 바로 '아포리즘'이다. 아포리즘(Aphorism)이란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 금언·격언·경구·잠언 등을 가리킨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무언의 가르침이 주는 깊은 울림, 인생의 깊은 체험과 깨달음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기록한 아포리즘은, 때로는 통쾌하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때로는 위로를 전하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준다.





### 짧은 글귀가 주는 큰 위로

누구나 한 번쯤 멋들어진 격언이나 잠언을 책상 앞이나 다이어리 맨 첫 장에 써 본 기억이 있을테다.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짧은 글귀는 힘들거나 지칠 때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격언은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바람이 너를 지나가게 하라’라는 인디언들의 격언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 겸손함과 위로를 건네주는 말이다.

얼마 전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아포리즘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고(故) 신영복 선생의 깊은 위로도 울림을 준다. 그의 ‘아포리즘’ 중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발까지다’라는 말이 있다.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사 중 가장 먼 길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비단 그 뿐인가.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난다’,

‘인간적인 사람보다 자연적인 사람이 칭찬이다’,

‘집이 사람보다 크면 사람이 놀리게 된다’ 등

오래도록 기억될 그의 글은 20년 20일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감옥이라는 닫힌 공간 속에서 보내며 걸러내고 빚어낸

인간적 성숙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울림을 남긴다.

### 잃어버렸던 생각과 사유를 되찾는 열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되 깊은 울림이 있는 아포리즘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치유제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 가운데 아포리즘 관련 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님들의 베스트셀러는 이미 몇 해 전부터 회자되어 온 바고, 시인이나 작가들이 써 내려간 잠언서들도 눈에 띈다. 치열한 삶에서 생생하게 건져 올린 지혜와 촌철살인의 문장은 많은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생각과 사유를 되찾아주는 열쇠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진지하기만 한 아포리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거울이 우리의 걸모습만 비춰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자’(새뮤얼 버틀러),

‘당신의 골프 실력이 100타를 깨면 골프에 신경을 써라. 만일 80타를 깬다면

당신의 사업에 신경을 써라’(조이 애덤스),

‘인생의 제일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에 모자라 보이던 저 젊은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손주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다’(유대 속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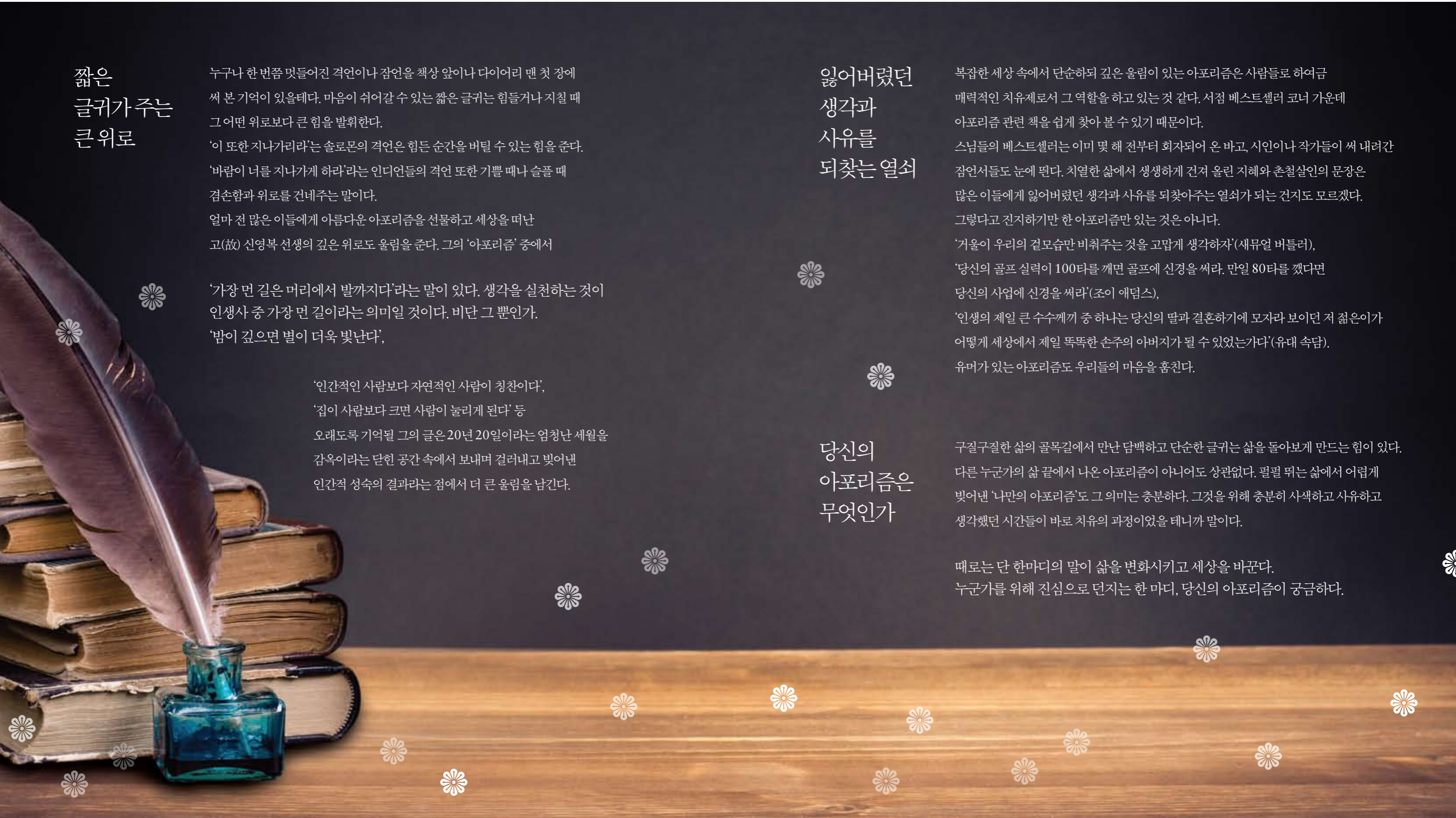
유머가 있는 아포리즘도 우리들의 마음을 훔친다.

### 당신의 아포리즘은 무엇인가

구질구질한 삶의 골목길에서 만난 담백하고 단순한 글귀는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다른 누군가의 삶 끝에서 나온 아포리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펄펄 뛰는 삶에서 어렵게 빚어낸 ‘나만의 아포리즘’도 그 의미는 충분하다. 그것을 위해 충분히 사색하고 사유하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때로는 단 한마디의 말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꾼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던지는 한 마디, 당신의 아포리즘이 궁금하다.



#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2월호 vol.14  
MONTHLY MAGAZINE. FEBRUARY 2016



## 08

### 행복을 주는 사람 | 니종민 바라봄사진관 대표

글로벌 IT기업의 지사장을 지낸 니종민 바라봄사진관 대표가 회사 생활을 접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데는 '재미있는 삶' '행복한 삶'을 향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재미로 시작한 사진 활동이 세상과 삶을 나누는 따뜻한 통로가 되어주었고,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선물로 다가왔다.



## 14

### 행복메신저 | 배혜진 KEB하나은행 분당미금지점 대리

은퇴 이후의 삶을 '행복'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KEB하나은행의 행복파트너. 분당미금지점 행복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는 배혜진 대리는 "금융적 자립뿐 아니라 비금융적 행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든든한 행복파트너로 성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 24

### Anti aging | 10년 더 젊어지는 뇌 건강법

건강한 신체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단이 필요하듯이 두뇌 건강에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매 등 질환 예방뿐 아니라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는 생활 속 뇌 건강법.



## 36

### 경제 이슈 I | 중국발 쇼크에 글로벌 시장 '휘청'

중국증시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면서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 폭락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그 배후에 자리 잡은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몰고 온 중국 금융시장 불안을 점검해본다.

##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만의 힐링 아포리즘은 무엇입니까?

##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IT맨에서 착한 사진가로 신명나는 인생 2막

##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노후 필요자금 및 준비상황

## 행복미래설계



- 14 **행복메신저**  
'공감'으로 행복을 견인하다
- 16 **H씨의 행복설계**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의 안정적 운용이 관건
- 20 **지식 플라자-세무**  
2016년 금융투자, 절세의 원년이 시작됐다
- 22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기초연금 수령
- 24 **Do! Dream**  
액티브 시니어를 꿈꾼다
- 26 **Anti aging**  
10년 더 젊어지는 뇌 건강법
- 28 **Alone, together**  
대화가 필요해!

## 연금이슈포커스



- 30 **연금 포커스**  
고령자 대상의 금융서비스 트렌드

## 경제 TREND



- 36 **경제 이슈**  
중국발 쇼크에 글로벌 시장 '휘청'
- 40 **부동산 이슈**  
내집연금 3중세트, 달라진 점은

## GLOBAL



- 44 **지구인 이야기**  
세계 시니어들의 공부법

## FUTURE



- 46 **은퇴, 버킷리스트**  
똑딱! 똑딱! 가죽공예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02월호 vol.14 (통권 14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6년 02월 4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나종민 바라봄사진관 대표

## IT맨에서 착한 사진가로 신명나는 인생 2막

글로벌 IT기업의 지사장을 지낸 나종민 바라봄사진관 대표가 회사 생활을 접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데는 '재미있는 삶' '행복한 삶'을 향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재미로 시작한 사진 활동이 세상과 삶을 나누는 따뜻한 통로가 되어주었고,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선물로 다가왔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착한 사진가 나종민 대표를 만나 행복한 인생 2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에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이 비록 이기적이라 해도 그의 본성에는 분명 다른 원칙이 있다. 그는 타인의 운명에도 관심을 가지며 타인의 행복이 그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비록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해도." 에덤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론은 "인간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행복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을 말하는 나종민 대표.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소유, 남의 눈을 의식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면 바라봄사진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약을 꿈꾼다.

### 하고 싶은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찾고 싶어 퇴직 결정

대부분 사람들이 생계수단, 자기만족, 성취감을 위해 직장을 다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년 동안 IT기업 엔지니어로 시작해 영업파트 일을 하기까지 그래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일했고, 나름의 의미와 재미도 있었죠. 그런데 관리직에 올라가면서 관리 중심의 반복되는 일상에 매너리즘을 느끼게 됐고, 어느새 일에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라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 되었고, 직장생활을 연장하는 것이 나에겐 의미가 없겠다 싶었죠. 그렇다고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하고 싶은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 금융자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시작으로 퇴직 후 불안감 극복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욕심을 내려놓고 퇴사 후 필요한 돈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대부분 은퇴 후의 불안감은 막연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불안감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금융자산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은퇴 후 삶을 계획했습니다. 90세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은 적금, 보험, 개인연금, 국민연금을 갖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봤어요. 매달 월급을 받던 때처럼 풍족하게 살 순 없어도, 지금 가진 돈이면 그러저럭 먹고살 만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덕분에 퇴사를 결정할 때에도 돈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였어요. 그러자 불안감 대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지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 평소 가족과 대화를 통한 삶의 공유가 가치관 일치로 이어져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내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아내는 평소 검소한 스타일이라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패턴에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특히 평소 돈에 대한 우리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아내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회사에서 일어난 일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저의 선택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의 선택이 우리 가족에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거죠.

### 희망제작소 강연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진관 아이디어 얻어

회사 퇴사 후 쉬면서 평소 좋아하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시작하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풍경, 사람들을 주로 찍고 다녔죠. 그러다가 우연히 희망제작소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진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진관을 기획하게 됩니다. 퇴직 후 봉사활동 삼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사진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뇌병변 장애인의 어머니의 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어머니께서 “장애인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사진관이 없어 아직까지 변변한 가족사진 한 장 없다”고 말한 것에서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진관을 만들면 어떨까” 아이디어를 얻었고, 바라봄사진관이 시작됐습니다.

###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수익 창출 가능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진 재능기부 봉사단, 사진 교육, 스튜디오 운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바라봄사진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진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비장애인들의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은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사진을 찍고, 그분들이 지불한 비용의 일정량을 다시 소외계층의 사진을 찍어 드리는 데 사용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것이 하나의 기부가 되는 형태죠.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항상 무료로 찍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 되시는 분들은 할인 비용으로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영리기업의 운영 경험이 큰 자산이 됐습니다.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사회공헌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는 생각으로 처음엔 주식회사부터 시작했죠. 지원금에 기대는 것이 아닌 자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받지 않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려면 수익사업과 사회공헌 사업의 균형이 중요해요. 저 또한 그 균형을 나름대로 잘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심과 수익모델이 안정화되면서 재원적인 지원을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영리민간단체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현재 정기회원의 후원금과 유료 촬영 수익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 몫을 개인이 가져갈지 사회에 환원할지는 각자 선택하기 나름이지만요.

###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은퇴 이후의 삶 달라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2막에 무엇을 할지 고민만 하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은퇴 이후의 삶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해보야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재미있는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다양한 곳에서 진행되는 은퇴자 프로그램이 많아졌어요. 하고 싶고, 생각하는 것은 뭐든 배우고,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해보고 아니면 딱 걸 또 하면 되고요. 그 시간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 나만의 기준에서 만족하는 삶이 곧 행복

돈,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봐요. 돈에 대한 철학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집착은 돈이 제공해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돈에 대한 나만의 기준에서 만족해 하니 행복이 가까이 왔거든요.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돈에 대한 나만의 기준에서 만족해 하니 행복이 가까이 왔거든요.”



### 현재 주어진 일을 재밌게 즐기며 하는 것이 최선

2년, 3년의 단기계획은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을 내다 본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솔직히 없어요. 요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착한 사진가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현재에 주어진 일을 재밌게, 즐기며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진관은 저의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저의 삶의 방향이기도 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세상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 노후 필요자금 및 준비상황

노후 생활비로 대부분 100~300만원을 원하나 준비가 매우 미흡

## 노후 필요자금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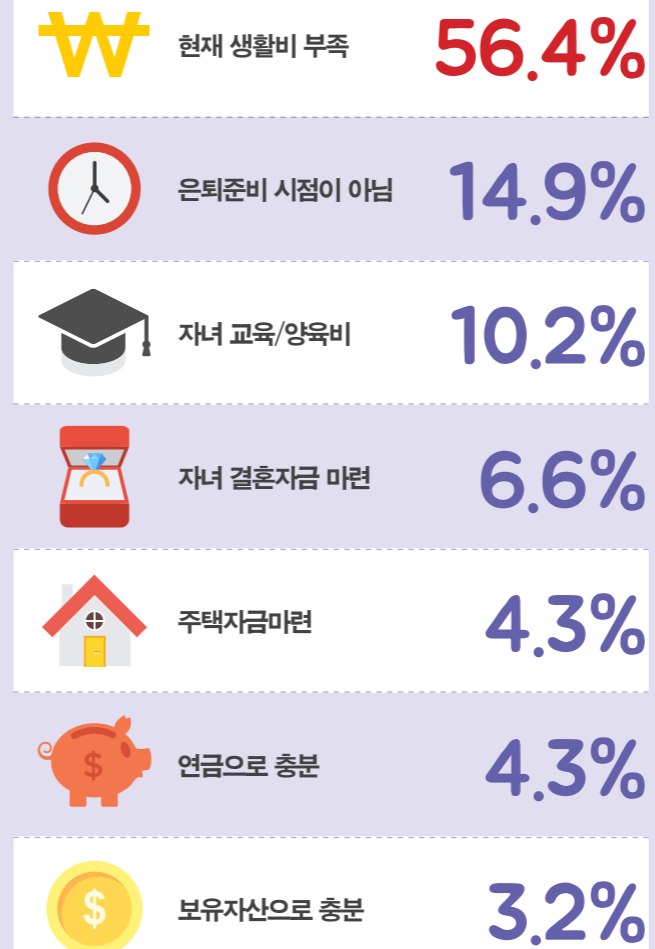
## 노후 필요자금 준비상황

자료: 통계청, 2015



## 노후 필요자금 준비안된 요인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은퇴가구 생활비 마련

자료: 통계청, 2015





# ‘공감’으로 행복을 견인하다

배혜진 행복파트너  
KEB하나은행 분당미금지점 대리



은퇴 이후의 삶을 ‘행복’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KEB하나은행의 행복파트너. 분당미금지점 행복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는 배혜진 대리는 “금융적 자립뿐 아니라 비금융적 행복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든든한 행복파트너로 성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고객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전문가로서의 치열한 노력이 더해지면서 ‘절대 공감력’을 발휘하고 있는 KEB 하나은행 분당미금지점의 행복파트너 배혜진 대리. 배 대리는 2005년 입행해 대출 1년 업무를 제외하고는 줄곧 VIP 상담에 주력해온 상담 베테랑이다. 보유 자격증도 주로 상담 쪽과 관련이 깊다. 보험대리점(생명, 손해), 변액보험판매관리사, AFPK,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상담사는 물론 은퇴설계전문가를 수료했고, CFP 자격증도 현재 준비하고 있다. “VIP 상담은 일반 창구보다는 긴 시간 동안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이 길어질수록 고객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배 대리는 상담업무가 시작되기 전 최근 이슈, 뉴스들을 미리 파악해 놓는다. 금융 정보뿐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감각은 고객과의 원활한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윤희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배 대리는 만족스러운 상담에 대해 “고객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배려다. 많이 질문하고 많이 듣다보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상담이 가능해진다고. “좋은 행복파트너란 우선 전문지식을 통해 적절한 자산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객들과 단순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경험도 필수”라고 얘기한다. 또 “이러한 역할을 할 때 고객과 행복파트너가 서로에게 좋은 네트워크로 발전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 금융적인 부분, 비금융적인 부분을 모두 만족시키는 든든한 행복파트너로 성장할 것”이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대기업에 근무하는 부장 직급의 고객과의 상담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업무 중에는 은행 방문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전화로 상담을 1차로 진행한 후, 자세한 상담을 위해 퇴근 이후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준 데 대해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또 가장 궁금해 하셨던 연말결산 계획에 대해 만족스러운 상담이 이뤄졌다며 상담 이후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IRP 등의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배우자분까지 새로운 고객이 되셨던 사례입니다.

행복메신저  
팁

###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TIP

- 1. 은퇴 준비는 빨리 시작하라.** 은퇴 준비는 보통 은퇴 즈음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예를 들어 ‘복리상품’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익이다. 미리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 2. 나만의 행복 기준점을 파악하라.** 행복한 노후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 취미생활, 봉사나 종교 등에 비중을 두고 노후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해 둔다면 적절한 은퇴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 3. 나를 위한 투자의 비중을 늘려라.** 더 이상 가족, 특히 자녀에게 나의 현재를 올인해서는 안되며, 본인에게 비중을 옮기는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목돈을 모으고 적금통장을 만든다. 하지만 결국 자녀에게서 기대한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은 더욱 크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현재 나를 위한 투자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의 안정적 운용이 관건

시민라디오PD로 일하고 있는 H씨(만 37세)는 회사원인 남편(만 42세)과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H씨 부부는 약 6억원 규모의 아파트, 월 200만원의 임대수익, 금융자산 등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자녀교육에 적극적인 H씨의 경우 미래에 발생할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 상속에는 부담이 생긴다. H씨를 위한 적절한 자산 포트폴리오 운용방법은 무엇일까?



## 자산규모 및 소득은 많은 편이나, 향후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고민

시민라디오PD로 일하고 있는 H씨(만 37세)는 회사원인 남편(만 42세)과 슬하에 초등학교 5학년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H씨 부부는 약 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5억원 규모의 상가소유를 통해 월 200만원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으로 2.6억원의 예금과 8,000만원 수준의 펀드를 가지고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본인의 근로소득 250만원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원, 임대소득 200만원을 합쳐 총 750만원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400만원, 교육비 250만원, 보험 40만원, 예/적금 60만원이 있다. H씨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임대소득도 있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부동산자산이 많고 부채가 없어서 노후 준비에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자녀가 예체능 계열 진학을 원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할 예정이라 미래에 발생할 자녀 교육비(장기유학이 예상되어 약 4억원 소요 예상)가 다소 걱정이다. 또한 자녀의 결혼비용(1억원 예상) 및 상속 등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6억 원
	상가	5억 원
	예/적금	2억 6,000만 원
	펀드	8,000만 원
· 부채	-	
· 순자산		14억 4,000만 원

### · 소득



##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400만원을 희망

H씨 부부는 은퇴시기를 각각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 부부는 생활비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를 위해 H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H씨 남편이 65세부터 매월 약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씨의 경우 직업의 특성 상 국민연금은 없다. 개인연금의 경우 60세부터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수령할 계획이다. H씨 부부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sup>1)</sup>을 살펴보면, 은퇴 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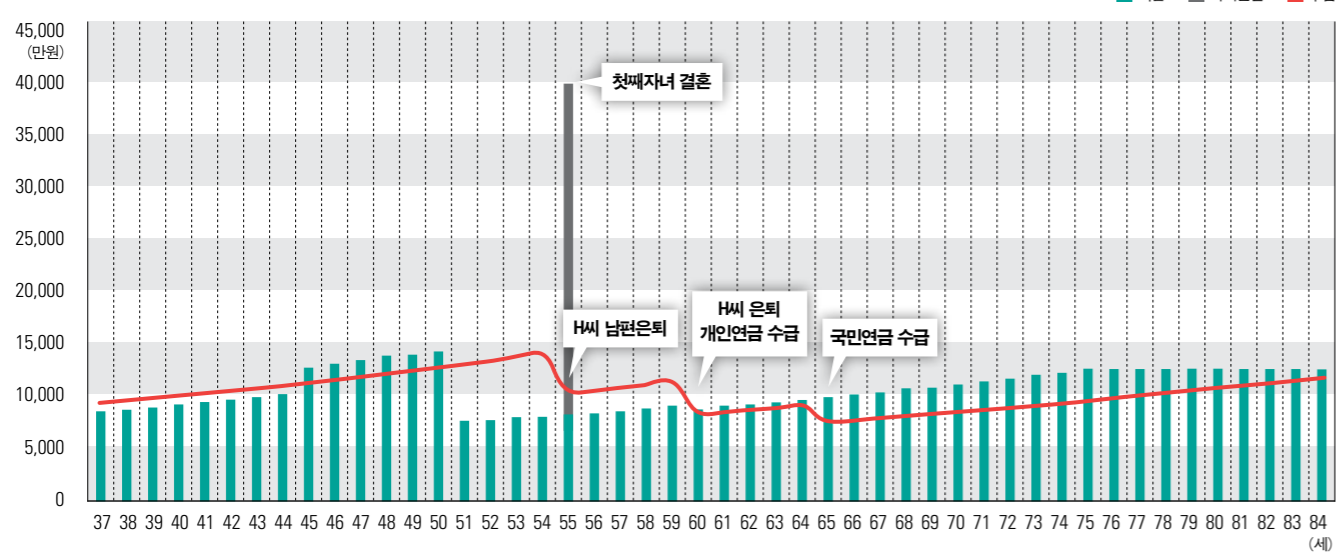
기 전인 44세까지는 지속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 해외 유학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교육비가 발생하게 되어 재학 기간(4년 예상) 동안에는 지속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자녀가 졸업할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51세부터는 자녀 교육비가 지출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발생하게 되며, H씨 부부의 은퇴시기를 기점으로 계단식 형태의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를 하더라도 상가 임대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게 된다. 다만, 은퇴 이후에 노후 지출 대비 상대적으로 소득(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 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개인연금, 국민연금, 임대소득)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자산을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현재부터 H씨 남편의 은퇴 및 자녀 결혼 전인 55세까지 약 2억 260만원의 금융자산이 확보되는 반면, 56세부터 85세까지 약 6억 8,200만원이 필요하여 총 4억 7,900만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임대소득을 기반으로

금융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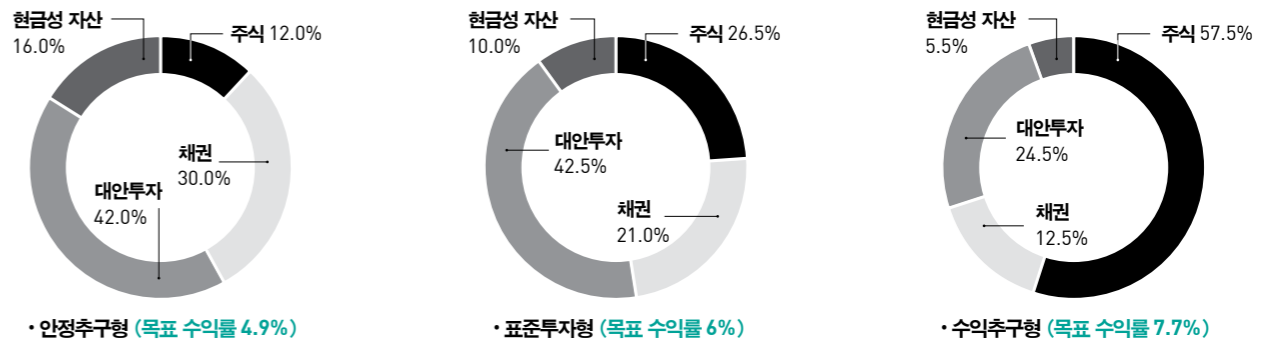
H씨 부부의 경우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포트폴리오의 76% 수준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자산의 경우 유동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부동산자산 보유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H씨 부부의 경우 5억원 상당의 상가 보유를 통해 월 200만원의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따라서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씨 부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H씨가 운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예금 2.6억원과 펀드 8,000만원을 합친 3.4억원이다. 금융자산 3.4억원을 3.30%의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미래에 부동산자산을 유동화하지 않고 금융자산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된다. 3.30%의 수익률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4.9%)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로 주식 12.0%, 채권 30.0%, 대안투자 42.0%, 현금성 자산 16.0%를 제시하고 있다. H씨의 요구수익률은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비중을 좀 더 낮추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중국 등 신흥국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험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식의 비중을 좀 더 낮게 가져가고 채권 및 대안투자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위와 같은 금융자산 운용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자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부동산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가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이 과세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것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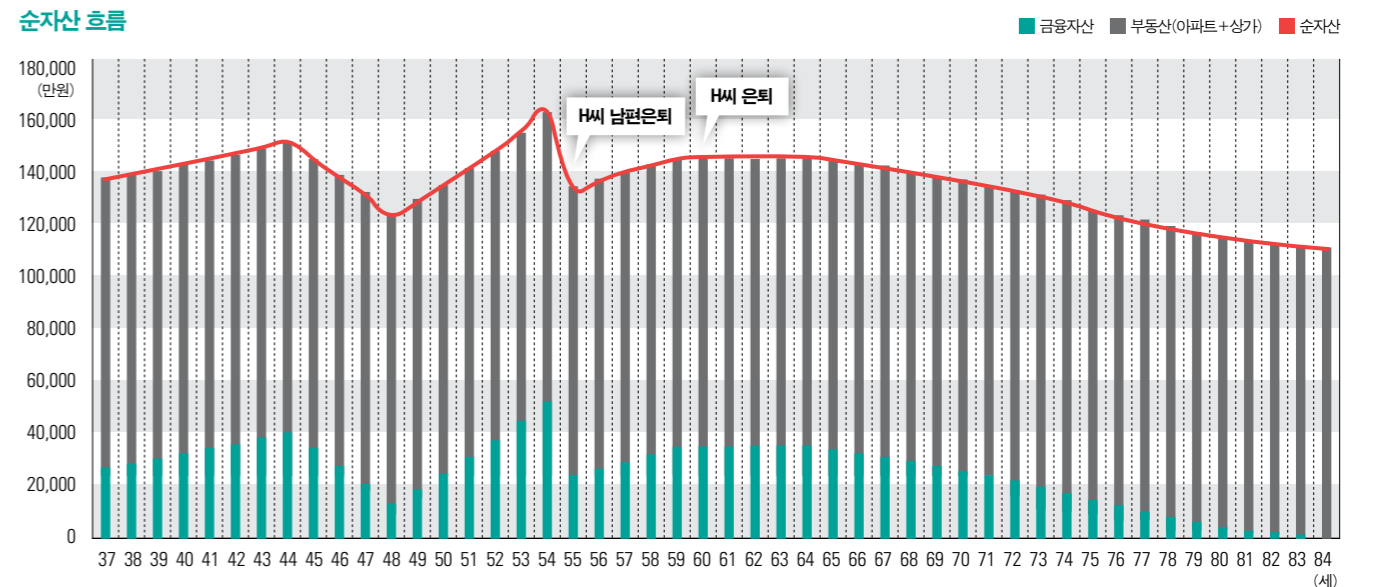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01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

H씨 부부는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상가 보유를 통해 임대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비록 예체능 계열로 진학할 자녀의 교육비가 다소 많이 든다는 점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다. H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기반으로 한 현금흐름뿐 아니라 상가 등을 활용한 임대소득 등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한다면 풍족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 발생

과 같이 예기치 않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도 H씨 부부의 사례와 같이 많은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노후에도 해당 부동산자산을 통해 현금흐름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H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자산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순자산 흐름



# 2016년 금융투자, 절세의 원년이 시작됐다



2016 개정세법은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두고 올해를 절세의 원년으로

일컫는 이들이 많다. 개정세법에서 주목해야 할 점과 절세를 위해 챙겨두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매년 12월 31일 보신각 종이 칠 무렵을 전후해 통과되던 개정세법이 작년에는 의외로 빠르게 통과(12월 2일)되었다. 지난해 8월,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많은 개정사항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자산의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이다. 미국(70.7%)과 일본(60.1%)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 금융자산 비중(26.8%)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금융자산 형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준비한 비장의 카드인 듯하다. 자, 그럼 패를 한 번 펼쳐보도록 하자.

## 1. 가입 안 하면 무조건 손해, 만능비과세통장(ISA)

그동안은 예금이나 펀드, 채권 등에 가입해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각 상품별로 세금이 부과되고, 펀드 같은 투자상품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익이 발생한 다른 상품의 금융소득을 공제해주지 않았다. 이른바, 이익은 이익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개정세법에서 새로 발표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이다. 만능비과세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통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뿐, 일정 금액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금리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입법 취지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 때에는 당초 정부 입법(안)보다 세제혜택이나 대상 등이 더 확대되었다.

구분	정부안	수정안
가입대상	①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단,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제외	① + 농어민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소득수준에 따른 비과세차등화 ① 비과세금액: 25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② 비과세금액: 200만원(상기 외)  초과분 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단축 (5년 ▶ 3년)	① 청년(15~29세) ②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이하 사업자	① 청년(15~29세) 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2. 해외투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해외증권투자나 해외직접투자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7년도에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해외주식펀드 세제지원'의 경우 기존·신규 펀드에 모두 적용되되,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환차익이나 비과세 기간 종료 후 발생한 매매·평가차익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어 2008년 금융위기로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했던 가입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에 개정세법에서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을 함께 비과세하고, 장기간(최대 10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해외금융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개정안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세제혜택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 과세 제외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가입 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기	공포일(1월 29일) 이후 전용계좌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3. High Risk High Return, 국내채권도 분리과세하자

금융투자에 있어서 절세플랜의 기초는 가입 가능한 비과세상품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고, 이후 분리과세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다소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투자자라면, 비과세상품들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 이번 개정세법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분리과세'의 가입기간 연장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① 비우량채권(BBB+ 이하) 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45% 이상 편입하고 ② 국내자산에만 투자하고,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인별 투자금액의 3,000만 원까지 분리과세(15.4%) 해주며, 가입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다.



##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은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2014년 7월 개편 시행된 이후 2015년 4월말 기준으로 440.9만 명이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고령자들 대부분도 기초연금의 지급이 식비 등 생활기반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들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수혜 범위가 소득인정 기준액의 상향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고령자들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집에 계신다면 한 번쯤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과 공적연금수급 수준을 감안하여 차등지급 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는 16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다. 그중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감안되어 결정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수준,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등이 고려되어 결정된다. 공적연금의 수급 수준은 무연금자, 국민연금의 수급수준, 직역연금의 특례대상 등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수준이 결정된다. 이상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은 월 최소 2만원에서 20만 2,600까지 차등하여 지급되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로는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 기초연금 수급관련 주요사항

구분	주요내용
연령	- 만 65세 이상자
소득인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16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56만원) + 기타소득(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재산의 소득 환산율)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급액	- 월 2만원 ~ 20만 2,600원
신청 및 신청장소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

##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 하나머니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현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 Hana Money 1 Click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사용하기' 탭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1

step 2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 액티브 시니어를 꿈꾼다

당신은 액티브 시니어인가. 은퇴 후 건강을 위한 준비는 물론,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단순한 놀이가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액티브 시니어.

처음 그들의 조합은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들었다. ‘할배’ 네 사람이 모여 배낭여행을? 잘 나가는 아이돌 그룹이 나와도 시청률이 나올까 말까 한데 한물간 할배들을 누가 봐줄까? 그러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할배 네 사람은 화제의 중심에 우뚝 섰다. 바로 케이블 TV의 ‘꽃보다 할배’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다.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센스 있는 옷차림, 낯선 곳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은 당당함, 영어 몇 마디로도 현지인들과 수다가 가능한 그들의 녀살은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다. 꽃보다 할배 들처럼 은퇴 후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자기계발, 여가활동, 관계 맺기에 적극적인 50~60 대를 가리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활동적인 시니어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2014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70% 이상이 TV 시청, 낮잠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휴식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나이 들어 돈 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되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액 자산가들 중 비재무적인 요소를 설계 하지 않아 행복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한다. 반대로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 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한 준비,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하기 위한 노력, 단순한 놀이가 아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가 시간 설계 전략을 철저히 세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액티브 시 니어가 되길 원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는 미리 생각해두자.

##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파악하자

혼자 있어서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기에 즐거운 사람이 있다. 독서나 영화감상, 블로그 관리나 인터넷 정보 수집 등 혼자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할 때 행복하지, 상대방과의 대화나 교류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적인 수양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인지 몸을 움직일 때 활력이 생기는 사람인지 파악해야 한다.

## 꼰대가 될 것인가 인생 선배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자

젊은이들이 나이든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꼰대’라는 인식 때문이다. ‘나 젊을 때는 말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 결국 다양한 세대와의 교류는 요원해진다. 꼰대가 아닌 액티브 한 인생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기억하자.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영화나 공연 관람 등의 문화 체험을 통해 감수성을 키워라 △음악과 문학을 가까이 하라 △젊은이들은 한심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세대불문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라 △어리다고 쉽게 반말을 쓰지 마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라 △유머감각을 키워라.

## 새로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원한다면 준비기간을 갖자

은퇴자들 중 몸이 움직이는 한 일을 하고 싶다는 이들이 많다. 시니어 취업박람회 성황인 이유이기도 하다. 비단 경제적인 요인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은퇴 후의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보통 은퇴 후 일자리는 과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 근무환경이나 신체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직업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전에 꾸준한 건강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 10년 더 젊어지는 뇌 건강법

건강한 신체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단이 필요하듯이 두뇌 건강에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치매 등 질환 예방뿐 아니라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는 생활 속 뇌 건강법.

언제부터인가 예전 같지 않게 반사 신경도 느려지고,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 안에서만 맴돌 뿐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는다. 자동차 열쇠, 휴대폰을 집 안에 두고 나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자주 있다.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변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바로 '뇌 건강'은 모든 신체 건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뇌가 건강하면 신체도 활력을 얻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 반면 활력을 잃은 뇌를 방치하면 우리의 신체는 물론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그렇다면 내 몸의 뇌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별일 아닌 일에 짜증을 내거나 무기력해지며, 의욕도 사라지고 우울감이 지속되고, 평소 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고, 표정은 굳어있고,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뇌 건강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소 과다한 스트레스, 술과 담배, 불규칙한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에 노출되어 있다면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식습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뇌가 젊어지는 습관

### 01 긍정의 감정을 만들어라

긍정의 감정은 뇌를 건강하게 한다. 긍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자연친화적인 삶, 재미난 놀이, 속 깊은 대화, 웃음 등 뇌 세포 움직임을 활성화시켜 뇌에 생기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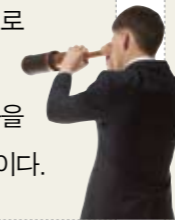
### 02 소식을 하라

소식이 장수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알츠하이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질 좋은 음식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뇌 기능과 면역을 강화하는 잡곡, 채소, 과일 위주로 건강 식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염분을 줄이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03 세상에 호기심을 가져라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스마트폰 등 젊은이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자. 또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탈피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를 감행해보자. 새로운 단골 가게 개척하기, 새로운 길로 다니기, 외국어 공부, 취미생활 등 또 다른 배움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04 적당한 운동으로 뇌 활력을 높여라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32%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다. 느긋하게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한다. 하루에 20분 이상 걸으면 뇌졸중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지고, 자연의 맑은 기운을 들이키며 리듬감 있게 걸으면 뇌에 활기가 생긴다.



### 05 잘 쉬어라

잠은 기억을 강화시킨다.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10분 간 낮잠을 자는 것도 괜찮다. 잠시 눈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혈압이 내려간다고 한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충분한 수면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뇌에 활력을 주는 식품

- 기억력 향상: 두부, 된장, 청국장, 호두, 잣
- 두뇌 활력: 깨, 호두, 콩
- 두뇌 회전: 우유, 두유, 김, 다시마, 미역, 생선, 조개류



- 뇌의 에너지원: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메밀
- 사고력 향상: 녹황색 채소, 멸치
- 스트레스 완화: 토마토, 당근, 오렌지, 레몬, 녹황색 채소, 김, 고구마



# 대화가 필요해!

인생 여정을 가치 있는 여행으로 만드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대화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을 얻기도 하고, 유쾌한 대화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기도 하는 관계를 꽃피우는 대화의 지혜.

젊은 시절, 눈 마주칠 시간 없이 바쁜 탓에 가족과의 대화는 늘 부족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가족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으며 달려왔다. 하지만, 은퇴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삶의 여유가 생겼지만 대화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대화는 겉돌고, 소통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다. '싸울까봐' '말이 안 통해서'라는 걱정과 불만으로 만나면 입부터 다물게 된다. 너도 나도 '소통'을 외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요즘, 부부 또는 가족, 사회와의 대화 단절은 노년을 우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는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사회 적응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뿐 아니라 삶 속에서 나 아닌 누군가와 의 원활한 대화는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다.

## V 가족 간 원활한 대화를 위한 셀프테스트

당신은 가족과의 대화에 문제가 있나요? 테스트 결과, 2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대화법'에 대한 점검, 연습이 필요하다.

- 가족에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은 적이 있다.
-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가족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편이다.
- 가족보다는 친구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잘하는 편이다.
- 가족이 말할 때 말을 중단시키거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 가족의 얘기를 듣는 것이 짜증날 때가 있다.
- 가족의 말을 듣다가 충고나 해결책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 가족과 싸움이 날까봐 일부러 저준다.
- 의견이 대립되면 가족을 설득하려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 V 관계를 꽃피우는 대화 매뉴얼

1. **잔소리를 피하라.** '웃이 그게 뭐야' '공부 좀 해라' '바르게 앉아' 등 사소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
2. **나의 기준만을 강요하지 말라.** 상대방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혀 다른 상식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대화는 유쾌해진다.
3.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한다. 말이란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4.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립 서비스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립 서비스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이다. 립 서비스의 추임새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즐겁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5. **듣기의 미학을 실현하라.**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선이다.
6. **목소리의 음량을 최소화하라.**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이 있다. 평소보다 낮은 음성은 듣는 사람을 긴장시킨다. 그리고 차갑고 냉철함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
7. **진심을 담은 눈빛도 중요한 화술이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8.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상대방도 털어놓는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만큼 두 사람의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9. **말은 가슴에 대고 해라.** 단순히 입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은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역부족이다.
10. **말투는 내용을 담은 그릇이다.** 듣기 좋은 말투를 활용하라. 같은 말이라도 듣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다. 통명스러운 말투, 명령하는 말투, 짜증 섞인 말투가 아닌 친절할 말투를 유지하자.

## tip 행복해지는 대화의 지혜

- **'3그 대화법'**: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는 3가지 표현을 자주 써라.
- **게리 채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기억하라**: 인정하는 말(칭찬, 감사, 격려, 겸손), 함께하는 시간(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것), 선물(배려와 정성이 담긴 징표), 봉사(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행위), 스킨십(사랑을 전달하는 육체적 접촉)
- **대화의 수준 높이기**: 감정이 배제된 지식 교환, 남 얘기, 잡담, 험담 등은 낮은 수준의 대화다.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노출하는 대화를 시도하고, 감정과 정서를 노출한 대화를 나눠야 진정한 대화가 이뤄진다.

참고도서 :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유쾌한 대화법





# 고령자 대상의 금융서비스 트렌드

바야흐로 호모헌드레드 시대가 도래했다.

고령화의 초고속 질주는 고령자 대상

금융서비스의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은퇴 이후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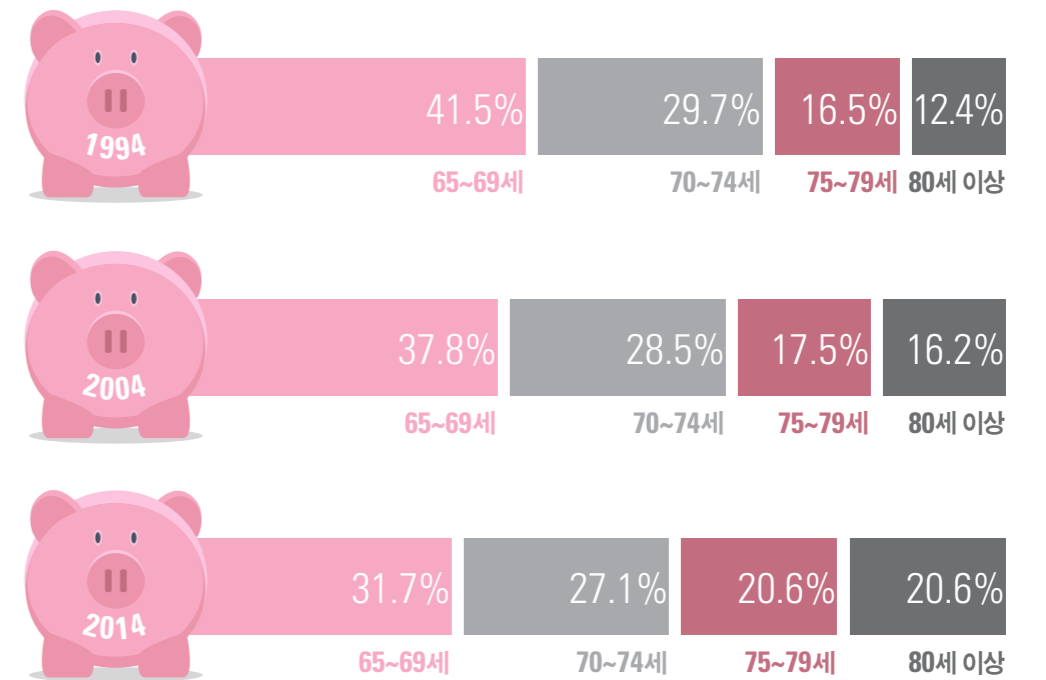
있을까. 꼼꼼히 체크해보자.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약 66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령 중에서 75세 이상의 분포가 1994년 29%에서 2014년 41.2%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까지 은퇴 이전 시점에서 은퇴준비를 위한 연금, 신탁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대 여명이 점차 길어짐에 따라 장수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은퇴 이전에 준비했던 노후준비가 부족하게 될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은퇴 이후에도 은퇴생활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충분치 못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대상의 금융서비스의 트렌드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65세 이상 연령구성의 변화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고령자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상속 및 증여상품과 역모기지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은 지금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다. 부유한 고령자를 위한 상속 및 증여상품과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나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위한 역모기지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고령자에게 금융자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일본 당국이 소비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에서 고령자가 자식이나 손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시키도록 유도함에 따라 상속 및 증여 관련 상품이 많이 출시되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신탁은행 계좌에 일괄 증여할 경우 1인당 1,500만엔 한도로 비과세되는 교육자금증여신탁이나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인 연간 110만엔 한도에서 자식이나 손자를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기타 고령자의 증여 및 상속 수요에 대응한 증여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탁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반면 은퇴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나 부동산에 자금이 묶여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금융상품으로는 역모기지 상품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영국 보험사인 Legal & General에 따르면 65세 이상 영국인이 주택에 묶여 있는 자산 규모가 약 1.3조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충분하지 못한 은퇴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고령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역모기지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인구변화 및 고령화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부유 국가나 중산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신흥국 국가에서 이와 관련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PB 회사인 Lombard Odier는 고령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 보건, 보험 등과 관련된 기업과 고령자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Golden Age Fund를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는 예상 밖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수에 기초하는 상품에 비해 인구변화 및 고령화의 확실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 고령자를 위한 비금융서비스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며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IT 기기 사용이 미숙하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인 Unicredit은 지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고객을 위해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PB(Home Visit Relation Manager) 2,000명을 선발 교육하여 대응하고 있다.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는 노인학자(gerontologist)를 고용하여 고령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서비스를 개발할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Barclays는 약 7,000명의 디지털 도우미(Digital Eagles)를 교육시켜 IT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고객에게 각종 금융서비스 사용뿐 아니라 모바일 채팅 등 다양한 IT 기기의 사용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Wells Fargo, SMBC, MUFG 등 글로벌 은행들은 별도의 고령자 고객만을 위한 전용회원

제를 마련하여 특화된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잔고를 보유하거나 보험을 가입한 고령자 고객에게 병원예약 및 약 처방, 간병인서비스, 장례 계획 지원, 국내외 여행 주선, 각종 이벤트 초대, 은퇴생활 관련 정보지 제공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고령자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뿐 아니라 고령자 고객의 가족들까지 고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 고령자를 위한 비금융서비스

자료 : 각사 홈페이지

금융회사	비금융서비스명	비금융서비스 내용	비고
Barclays	Digital Eagles	각종 금융서비스 및 모바일 채팅 등 IT 기기 사용법 교육	고령자 고객
BoA	-	노인학자 고용하여 고령자 전용서비스 개발 및 직원 교육	고령자 고객
Nippon 生命	-	자택방문 간병서비스, 전문의사 연결서비스	생명보험가입자
Wells Fargo	Elder Care rogram	간병인서비스, 집안관리 등 생활서비스, 장례 계획 지원	전용회원제
MUFG	Quality Life Club	① 心の豊かさ(마음의 풍요로움) : 여행, 엔터테인먼트 ② 心身の健康(심신의 건강) : 건강, 식생활, 응급의학 ③ 経済的なゆとり(경제적인 여유) : 자산운용, 금융세미나, 금리우대	전용회원제
SMBC	SMBC 클럽 50s	① News Letter 제공 :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② 세미나 개최 : 충실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개최	50세 이상 고객 대상 전용회원제 (예금 잔고 500만엔 이상)

### 금융회사들은 고령자 고객들의 신뢰 획득이 중요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고령자를 고객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은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투자은행 업무의 위험을 줄이고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려는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 차원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고령자들의 인구 비중과 보유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가 미국 전체 개인금융 자산의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의 고령자와는 다른 소비문화를 가지면서 투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투자권유에 현혹되기 쉽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왔는데 이는 고령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크게 불거진 바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 HSBC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연령 83세인 고령자 2,485명에게 평균 기대 여명보다 만기가 긴 상품을 판매한 것이 불완전판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 HSBC는 영국 소매금융 사상 최고 액수인 1,0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만 했다. 국내에서도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고령자였으며 2013년 동양증권 사태에서도 60대 이상이 전체 피해자의 18.8%에 달하는 등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들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여 왔다. 특히 고령자들이 잔여 투자기간이 짧아 손실 발생 시 회복기간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 장치들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2007년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준수해야 할 권고사항을 발표했고, 일본은 2013년 고령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내규를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에서도 2012년에 고령자 대상 ELS 판매절차가 강화되었고, 지난해 11월에는 70세 이상의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포 및 콜센터에 전담창구를 마련해야 하고 지정된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내규에 따른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최근의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려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고령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완전판매의 우려를 불식하는 등 금융기관의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금융상품들이 점차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상품들을 고령자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사회적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비금융서비스로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객 충성도 및 금융회사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자 고객은 미래 현금흐름과 투자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전통적으로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며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고령자들의 성향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자들은 자신의 은퇴준비 정도에 따라 투자목적에 달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단순히 일정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전략에서 고객의 투자목적에 기반한 전략(Goal Based Investment)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고령자들은 단순히 저위험-저수익 상품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목표기반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고령자의 경우 투자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투자가 더 적합함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의 현금흐름과 투자목적에 충분히 고려하되 자산관리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7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본업감시인 심사결과 2015-광고-3054(2015.09.18)

# 중국발 쇼크에 글로벌 시장 '휘청'

중국증시가 연일 폭락을 거듭하면서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 폭락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그 배후에 자리 잡은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몰고 온 중국 금융시장 불안을 점검해본다.

## 새해 들어 중국 증시 급락과 위안화 절하 가속 등 중국발(發) 쇼크 부상

2016년 새해 들어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주가 급락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식 매매를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나 실시되었지만 주식시장의 폭락세를 막지 못했으며, 1월 8일에는 증시가 개장 29분 만에 조기 폐장되는 결과를 맞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종합주가지와 심천종합주가지는 올 들어 각각 17.6%, 20.2% 급락(1월 22일 현재)하며 지난 해 8월 중국 증시 불안기의 저점을 하회하고 있다.

중국 증시의 급락은 새해 IPO 재개 및 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해제(1/8일 예정) 등 공급물량 부담이 1차적 원인이지만, 위안화 약세 심화와 실물경기 둔화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도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역외 외환시장에서 중국경제 성장둔화 및 자본유출 우려, 외환당국의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 등으로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정부도 위안/달러 기준 환율을 연이어 상향조정하면서 위안화 약세가 가속됨에 따라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위안/달러 환율은 지난 1월 7일 6.6042위안(역내, 연말 대비 +1.8%) 및 6.7583위안(역외, 연말 대비 +4.1%)까지 급등하면서 2011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 차이나 리스크의 부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

지난해 12월 미(美) 연준의 금리인상 실시 이후 대내외 경제 향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처럼 중국발(發) 충격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일제히 요동치고 있다. 중국 증시의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는 홍콩 항셱H주(1/22일 기준 -16.1%)가 급락세를 시현했으며, 중국 경착륙 위험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 및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낙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원 수출국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선진국 증시도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속에 글로벌 성장둔화 위험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업종 부진 등이 겹치면서 일본(1/22일 기준 닛케이 -10.9%), 미국(1/22일 기준 S&P -6.7%) 등이 동반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한 중국발 충격 여파로 국제적으로 안전 선호 현상이 부각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국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엔/달러 환율이 한 때 115엔대에 진입하는 등 엔화도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위안화가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신흥국 통화 역시 특히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심화되었다. 아울러 이란-사우디 갈등 고조 등 중동 긴장의 재심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 및 수요위축 우려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추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1/22일 기준 KOSPI -4.2%)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1/6일)이 겹치면서 지난해 8월의 고점을 뚫고 1,210원대까지 급등하는 등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안전자산 선호로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하기도 했다.



자료: 블룸버그



**중국의 증시 폭락보다는  
그 배후에 자리 잡은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

지난해 8월의 폭락 이후 반등세를 시도하던 중국 증시가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주식 거래가 대부분 중국 내 개인투자자 위주임을 고려할 때, 증시 급락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력이나 대외 직접적 전염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중국 증시 거래량 중 82%가 개인투자자이지만 가계자산 중 주식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며, 나아가 중국은 여전히 자본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금융투자의 비중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 증시 급락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그 배경, 특히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나 위안화 절하 가속에 따른 영향력 등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의 기준선 하회와 성장률 6%대 추락 등으로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2016~2020년 13차 5개년 계획기'의 성장목표인 6.5%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부채 의존적 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 주가 급락에 맞선 정책대응의 미숙함 등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성장모델 전환 과정에서 증시 급락 등의 대내 불균형 표출에 맞선 정책 실패가 위기로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989년에 한국도 최근의 중국과 유사하게 주가급락에 맞서 투신권을 통한 무제한 주식매입(6조원 투입)에 나섰으나, 투신권 경영 악화로 주가침체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만 양산했으며, 주가 급락과 투신권 사태가 결국은 '금융의 낙후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금융자유화에 나섰으나 결국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국의 주가 폭락과 정부의 무리한 대응 과정에서 증시 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자료: 블룸버그

**위안화 절하 가속으로  
경쟁적 평가절하 및  
신흥시장 위기 확산 우려**

중국 증시 불안의 직접적 전염 여지는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증시 급락과 맞물려 최근 위안화 절하가 다시 가속되면서 국제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각종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핫머니 유입이나 홍콩 등 역외 금융센터를 활용한 투자 등은 전염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 자제 등의 안정적인 정책운영으로 위기 확산을 억제한 일등 공신이었으나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셈이다. 특히 위안화 절하 가속으로 국제적인 디플레이션 압력 심화와 경쟁력 위협 등에 노출된 신흥국을 중심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의 위기확산의 핵심 메커니즘이었던 '경쟁적 평가절하'가 확산되면서 환율갈등이 고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개혁  
프로세스 등을 고려할 때  
위안화 절하의 가속  
여지는 제한적**

단기적으로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 압력과 위안화 실효환율 고평가 부담, 나아가 경기방어 노력 등으로 위안화 추가 절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6월 '선강통(선전-홍콩증시간 교차거래)' 개설 계획 및 MSCI 신흥시장 지수편입 가능성, 10월 SDR 편입 등의 단계적인 개혁 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위안화의 지속적인 가치하락은 부담이다. 오히려 소비주도 성장모델로의 이행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위안화 절상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최근 중국 정부는 국내 위안/달러 환율(CNY) 관리를 넘어 역외에서 위안화 매수개입을 통해 역외환율(CNH) 안정 및 역내외 환율의 괴리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역외 위안화 공급감소로 인해 홍콩의 역외 위안화 금리(CNH Hibor)가 폭등했으나, 정작 중국 내 위안화 금리(Shibor 등)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증시의 경우 주가 하락에 맞선 국영 기관 투자자("national team")의 매수물량(2,0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이 잠재적인 매물부담인 데다 정책실패 실추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대중(對中)  
금융연계 심화에 따른  
중국발(發) 충격에 따른  
민감성 증대에 유의**

중국 증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홍콩 H주나 후강통 등 중국 주식 관련 익스포저의 손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이나 환율개혁 의지 등을 감안할 때 당장에 중국의 경착륙 위험이나 위안화 추가 절하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금융불안의 국내 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그러나 한·중간 실물연계가 높은 가운데, 중국 금융개방 진전과 SDR 편입, 원-위안화 직거래 등과 맞물린 국내 '위안화 허브' 추진 등으로 금융 연계가 심화되고 있어 중국발 충격에 대한 국내 민감성의 증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행기' 중국 경제의 속성상 각종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증시 급락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 위험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내집연금 3종세트, 달라진 점은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와 노후 보장을 위해 마련한 '내집연금 3종세트'.

과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지난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이 대거 포함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주택연금은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정부보증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낮은 이용비율(자가 보유 고령층의 0.9%)이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국내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평생 거주를 보장 받으면서도 비유동자산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주택연금의 필요성은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강조된다. 최근에는 은퇴연령층의 과도한 부채부담 완화방안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택연금 활성화의 정책적 명분이 더욱 부각되었다.

##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전환 가능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고연령 가구의 주택연금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주택연금 이용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일명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주택연금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가 연금지급 총액의 20~50%(가입연령에 따라 차등적용)로 대출금액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제도개편으로 일시인출한도가 70%로 확대되었고,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지급체계 조정(초기보증료를 월보증료로 분산)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이용자의 주택연금 전환이 더욱 유리해진다. 특히 은퇴이후 소득절벽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층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계층에는 금리우대를 통해 더 많은 연금수령액 보장

또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통해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주택가격 2억5,000만원(2015년 거래기준 주택평균가격) 이하, 소득2분위(하위 40%) 이하 등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주택가격 2억원, 60세 가입자의 경우 이러한 금리우대(연금산정이자율 1%p 인하)를 통해 매월 20%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일반형 45만5,000원, 우대형 54만7,000원).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주택가격 2억원 이하인 경우가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상당수의 주택연금 이용자가 금리우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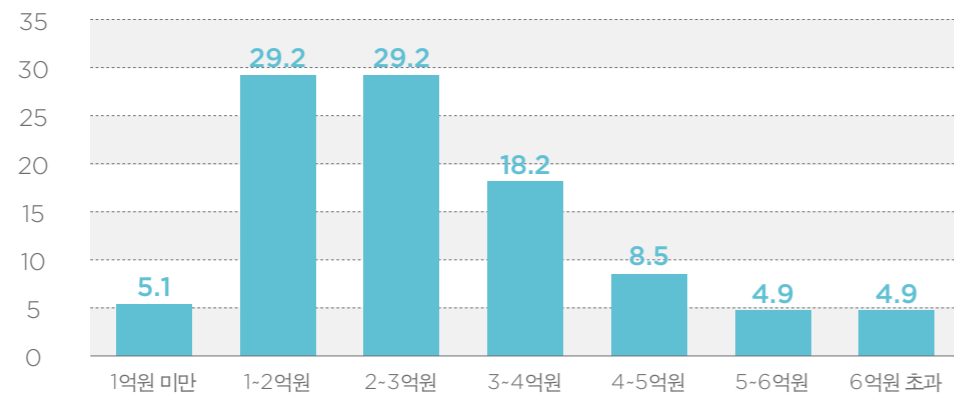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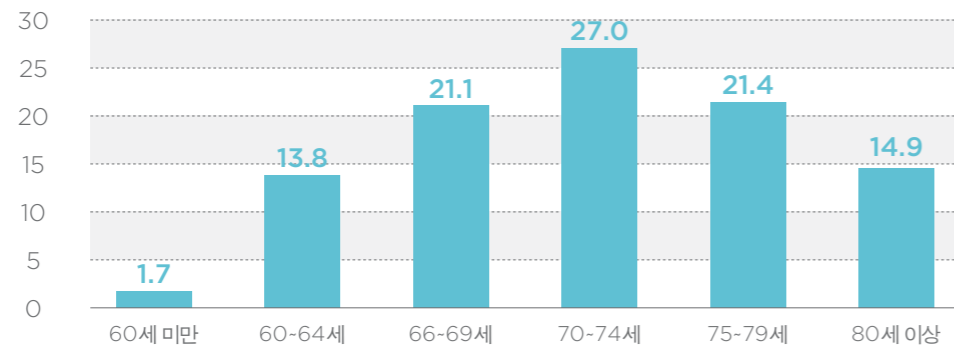


**불투명한 주택가격 전망 속에 주택연금을 활용한 은퇴설계 고려해볼만**

이외에도 40~50대의 주택담보대출 차입자가 60세 이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경우 대출금리(공사 보금자리론 대상)를 낮춰주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주택연금은 이러한 개선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용자의 평생 거주를 보장하는 동시에 종신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장점을 갖는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최초 가입 시 결정된 연금수령액은 주택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유지되는 탓에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연금의 가입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정책당국에 의한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주) 참고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 2% 후반대로 가정하고 있으며, 동 수치는 연 1회 조정된다(~2012년 3.3% → 2013년 3.0% → 2014년 2.9% → 2015년 2.7%)

**주택연금 이용자 연령특성 및 주택가격 분포**



주: 2015년 10월 기준 | 자료: 주택금융공사

#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700만원**  
\*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산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400만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2015년부터 적용)

**대폭 확대된 퇴직연금 세제혜택!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 5천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인 경우  
- 13.2% 세액공제 적용시, 최대 92만 4천원 세액공제

**세제혜택 포인트**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 [ 13.2% / 16.5% ]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16.5%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 퇴직금 및 추가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 가입 후 1년 경과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 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리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인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다만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인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6-00004호(2016.02.01 ~ 2016.03.31)

1588-3111  
www.hanaw.com



자료출처 : 코트라, 한경비즈니스



# 세계 시니어들의 공부법

‘영 올드(Young-old)’는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 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전 세계 ‘영 올드’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들여다보자.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완만한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년의 삶을 중요한 국가사 회정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 노년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문직 은퇴자들의 자발적인 조직 과 클럽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노노(老-老)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평 생교육의 진원지로 대학과 노인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와 제도적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이고 생산적 인 노년기를 펼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각 도시를 중심으로 결성된 은퇴자협회의 자율적 조 직과 프로그램, 노인 재가시설 양로원에서의 노년교육 프로그램도 인기가 높다.

유럽 내에서도 평생 교육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 오스트리아 고령층들은 어떻게 배움에 대한 열 정을 꽃피울까.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통계에 따르면 55세~64세 연령층의 93%가 배우는 활 동이면 어디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0세 이상 연령층의 직업 관련 전문 재교육 부문이 9.5%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해 사이버 대학 등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 대학 평생교육을 활용하는 시니어 교육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교육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시 니어커뮤니티들이 대학교의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와 일본의 칼리지링크(College-Link)형 시니 어 커뮤니티이다. 대학교가 사업주체가 되어 은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니어 커뮤니티 가 대학교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 커뮤니티와 대학교 모두 시너 지효과를 얻고 그 혜택도 시니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다. 특히 미국 UBRC는 시니어들이 좋아하 고 익숙한 전통, 문화, 예술, 공예 콘텐츠는 물론 요즘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어, 건강, 자산관리, 소소한 취미생활, 중국 등 이국적인 문화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 현장견학과 체험 프로그 램으로 시니어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 시니어 대상 유료 강좌도 인기

미국에서는 대학 외에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창구들도 생겨나고 있다. 시니어 대상의 유료 강좌를 운 영하는 교육기관만 수백 곳에 이른다. 그만큼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는 것 을 반증한다. 예를 들어 2006년에 개설된 미국의 ‘원데이 유니버시티(One Day University)’는 아 이비리그 대학 교수진들이 강사로 나서 하루 종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50대 는 물론이고, 90대 어르신들까지도 이곳에서 얻게 될 ‘지적 자극’을 기대하며 하루 수강비 몇 백 달 러를 기꺼이 지불한다.

미국 SCAN(Senior Citizens Activities Network)프로그램에서는 예술, 인문학, 건강, 재정관리, 정 보화, 사진, 사교춤, 음악 감상 등한 학기에 1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 정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미국 노인센터의 서비스도 계속적으로 성장,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강의 포 럼, 토론회 등을 통해 영양, 가정안전, 건강, 소비자 권리, 법, 창작, 방어적 훈련, 성경 공부, 리더십 훈련 등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선진국의 노인 교육 프로그램은 점점 더 성장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수준도 일반적인 수준의 교육에서 대학수준의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적인 학습, 체험, 노인 상호간의 교류 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이 돋보인다. 또 선진 국에서는 이러한 노인 교육을 위한 노인교육전문가 양성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똑딱! 똑딱! 가죽 공예

최근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  
가죽공예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간단한 소품에서 가죽 가방까지, 가죽공예로 행복해지는 법.

똑딱! 똑딱! 가죽을 뚫고, 꿰매고, 붙이고, 말리면서 느끼는 또 다른 행복.  
가죽공예는 손바느질로 명함지갑, 파우치, 가방 등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만든다. 가죽이 가지는 소재에 매료되어 가죽공예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날로그적 감성과 빈티지한 공간에서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죽공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두꺼운 가죽을 재단하고 바늘구멍을 낸 뒤 일일이  
손바느질로 엮어 만드는 가죽 수공예품은 기계로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제품에선 감출  
수 없는 나만의 손맛이 난다. 이것이 가죽공예의 매력이다. 가죽과 내 손이  
닿는 순간 찾아오는 높은 집중도와 마음의 안정은 곧 몸과 정신에 깃든  
긴장을 내려놓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 가죽공예가 처음이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 가죽이 많이 들지 않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컵받침, 팔찌, 카드 지갑 등에 도전해볼 수 있다.

### 필요한 준비물은?

가죽, 실, 망치, 목탁, 송곳, 컴퍼스, 고무망치, 자, 모양편치, 커터칼, 펀치, 가죽칼,  
바늘 등이 필요하다.

### 가죽공방은 어디에?

추천할만한 가죽공방에는 심아공방, 앰퍼샌드레더, 스튜디오 모찌,  
레더원, 뽕가미 등이 있다.

도전하자!  
가죽공예

Trustee & Global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카드의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